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 성향 및 전공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은희^{1*}

^{1*}경북전문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th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s

Kim Eun Hee^{1*}

^{1*}Department of Nursing, Kyungbuk College

(Received September 25, 2016; Received October 02, 2016; Accepted October 08, 2016)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fine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and to relationships among above variables.

Methods.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selected as 163 P city nursing student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6 to December 16, 2016.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Scheffes'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 WIN/PC 22.0.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go resilience depending on relationship with friends and admission motivations. Satisfaction in maj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relationship with friends.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in nursing students.

Conclusion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 for improving ego resilienc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major in nursing students.

Key Words: Critical thinking, Ego resilience, Nursing, Satisfaction of major,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eh3536@naver.com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의료현장의 의학기술과 지식 정보의 발달에 따라 대상자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아져 더욱 간호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¹⁾. 간호사의 전문성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지니고 또한 독립적으로 전문직업인으로 필요한 기초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²⁾. 특히 간호대학생은 의료전문인이 되기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국가고시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³⁾. 일부 간호대학생들은 정서적 문제나 대학생활에 대한 부적응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4,5)}. 또한 고학년으로 진입하면서 임상현장이라는 낯선 환경, 실습의 두려움과 불안, 과도한 과제와 팀과제 내 역할 갈등 및 지식부족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져 간호학 전공에 대한 회의감으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위축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4,5)}, 더 심한 경우 신체적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⁶⁾.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전공적응과 관련하여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심리학적 개념인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통제 수준을 융통성 있게 조절함으로써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이며, 외상과 좌절에 대한 대처로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동적인 능력이다⁷⁾.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긴장 및 인내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며, 다양한 계층의 대상자들과 뛰어난 의사소통능력으로 치료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으며 주위의 여러 의료 인력과도 상호협력관계 형성으로 쉽고 수월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⁸⁾. 현재 간호교육은 전공기초인 해부학, 생리학, 의학용어, 간호과정 외 다양한 이론적 지식을 학습한 후 간호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간호상황에 적용하는 실무기술방

법을 탐구하며 습득하는 전공교과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호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은 간호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다양한 이론과 간호현장을 경험하고,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한다⁹⁾.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을 간호전문가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간호교육기관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교육성과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방법의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근거중심의 임상적 추론과 판단을 하게 하는 비판적 사고 성향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⁰⁾. 비판적 사고 성향은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최선의 목표를 세우고 임상적, 판단결정을 할 의향으로 전략과 근거를 찾는 지적 사고과정으로 미래 간호교육에서 간호전문직의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간호교육수준을 달성해야만 간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시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근거중심 간호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암전문병원 간호사가 임상결정능력과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끊임 없이 다양한 임상문제에 직면하는 간호사에게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위해 올바른 판단하고 전인적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¹¹⁾.

비판적 사고는 간호 실무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적절한 임상적 의사결정을 위해 일관적으로 사용하며, 간호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와 판단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임상 간호 전문성을 발전시킨다¹²⁾.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은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간호업무수행 정도가 높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경우 학과수업에 참여하거나 대학생활적응정도가 낮아져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되며, 이는 자신의 전공에 대한 혼란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져 결국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

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Park and Lee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이 잘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한 결과로 학과수업이 적성에 맞지 않아 전공학과에 대한 부적응으로 심리적 갈등과 대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타 전공대학생과 달리 엄격한 교과과정, 과중한, 엄중한 행동규범, 장기간의 임상실습, 최종 국가시험에서의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과중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¹⁴⁾

간호교육현장에서 전공만족감이 높은 학생은 졸업 이후의 직장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성취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내재적으로 동기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학과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향상시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동기부여하고, 자신이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게 격려하며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²⁾.

간호대학생들이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수자는 수업 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적극적인 학업적응을 위해 대학생활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한편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Shin 과 Park¹⁵⁾과 Ji et al⁸⁾ 및 Park과 Lee¹³⁾과 비판적 사고성향(Chaug¹⁵⁾, Shin 과 Cho¹⁶⁾ 및 Lee et al¹⁷⁾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학 또는 간호학 분야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²⁰⁾ 간호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²¹⁾.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관련성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의 방안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공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6월동안 P시 간호대학 3곳에 재학중인 1~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없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자발적으로 동의한 163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여 조사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일반적 특성 8문항, 자아탄력성 14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27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을 포함한 총 57문항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2.3.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 and Kremen⁷⁾이 개발하고 Yoo and Shim²²⁾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Yoon²³⁾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27문항 중 2개의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3.3.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미국 Illinois 대학에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를 위해 개발한 도구를 Kim and Ha²⁴⁾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간호학과 전공만족과 관련된 18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2.3.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6년 6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루어졌다. 경상북도 소재 3년제 및 4년제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0명을 임의 표출하였으며 표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참여를 허락한 학생들에게 연구동의서를 받고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

었으나 응답의 질이 낮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설문지 작성이 충실한 163부를 자료분석으로 사용하였다.

2.3.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PC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는 독립 t-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16.6%, 여자가 83.4%이었고, 나이는 22세 이하가 56.4%, 23세에서 25세가 36.3%, 26세 이상이 7.4%이었다. 종교는 있다가 38.0%, 없다가 62.0%였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58.3%, 불만족 41.7%으로 반 이상이 전공에 대해 만족하였고 대인관계는 보통 49.1%, 좋음 38.0%, 나쁨 12.9%이었다. 학업성적은 2.9이하가 42.9%, 3.0이상이 57.1%이었다. 입학동기는 높은 취업률 40.5%, 성적에 따른 경우가 34.4%, 스스로 선택 18.4%, 권유 6.7%이었다.

3.2.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점을 만점으로 평균 3.39 ± 0.65 점이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을 만점으로 평균 2.96 ± 0.31 , 전공만족도는 5점을 만점으로 3.51 ± 0.51 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교우관계에서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높았고, 교우관계가 보통인 경우가 나쁜 경우보다 더 높았다.

연령, 종교, 성적수준과 입학동기에 따라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성별, 나이, 종교, 교우관계, 성적수준, 입학동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교우관계가 보통인 경우가 교우관계가 좋은 경우보다 높았고, 교우관계가 나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성별, 나이, 종교, 성적수준, 입학동기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Gender	Male	27(16.6)	
	Female	136(83.4)	
Age(yr)	≤ 22	92(56.4)	21.26 ±3.35
	23~25	59(36.2)	
	≥26	12(7.4)	
Religion	Yes	62(38.0)	
	No	101(62.0)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95(58.3)	
	Unsatisfaction	68(41.7)	
Personal relationship	Good	62(38.0)	
	Normal	80(49.1)	
	Bad	21(12.9)	
Academic achievement	≤2.9	70(42.9)	
	≥3.0	93(57.1)	
Admission motivation	High employment rate	66(40.5)	
	According to score	56(34.4)	
	self choice	30(18.4)	
	Recommendation	11(6.7)	

3.4.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비판적 사고성향($r=-.181, p=.021$)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전공만족도($r=.800, p<.001$)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Mean score of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by participants (N=163)

Variable	M±SD	Min	Max
Ego resilience	3.39(0.65)	1.9	5.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96(0.31)	2.0	4.2
Satisfaction in major	3.51(0.51)	2.3	4.8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3.39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and Lee⁹⁾의 연구에서 3.38점과 Lee et al.의 3.30점과 비슷한 결과였고²⁵⁾, 의학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의 연구에서 3.82점보다는 낮은 점수였으며²⁶⁾, Park and Lee의 연구에서 2.72점⁹⁾, Ji et al.의 연구에서 2.84점보다는 높은 점수이다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에서는 교우관계가 좋은 편일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 and Lee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²¹⁾,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Hong의 연구에서 나이, 성별의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²⁶⁾.

자아탄력성은 비교적 최근에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경험에서 회복하는

힘이 클 뿐만아니라 긍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⁷⁾.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낯선 환경과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은 전공에 대한 학업스트레스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동료들과의 새로운 대인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기 때문에⁶⁾, 변화가 심한 상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처했을 때 자아탄력성은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교육과 강도 높은 이론교과목을 학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적요인으로 궁극적인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학업적응을 유도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잘 극복하고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 증진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확인한 연구²⁷⁾와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긍정심리 프로그램²⁸⁾ 등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수의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추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5점 만점에 평균 2.96점으로 4년제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Shin and Cho의 연구에서 3.44점¹⁶⁾, Park and Hong의 연구에서 3.41점 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²⁹⁾. 학년과 나이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중 체계성이 낮은 이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중고등교육이 암기위주의 교육방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사고 훈련의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간호대학생의 논리적인 사고성향의 풍부한 경험을 위해 간호교육과정에서 인문학 교

과목의 개설 및 논리적 사고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개발과 자발적 창의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⁶⁾.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1점으로 Kim and Lee의 연구에서 3.64점보다 낮은 점수였으며²¹⁾, Oh의 연구에서 3.43점보다 높은 점수였다³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일반적 변수에서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나이, 학제,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교우관계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Kim and Lee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²¹⁾. 이는 교우관계 특히 친밀도가 높은 간호대학생들끼리 서로 또래관계를 맺으면서 간호학과 학업계획이나 학업결과와 스트레스를 서로 나누고,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Kim and Kim의 긍정심리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사고와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²¹⁾.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적인 코칭과 전문적인 자문으로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래문화 장려를 통한 타 학과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나 학과 내 동기들과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교과 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먼저 자아탄력성과 비판적사고성향 간의 정적 상관관계 결과는 Park and Hong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정적 상관관계로 밝혀진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집단이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에 주어진 간호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비판적 사고는 간호사로 하여금 근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하므로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적절한 자아 통제가 바

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융통성을 발휘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간호 상황에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고 숙련된 간호행위와 의사소통으로 문제해결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간호 상황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에서의 높은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수와 교우관계를 긍정적으로 사고할 것이며, 본인의 전공에 대해 더 좋은 감정과 평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공만족도는 높아진다

고 볼 수 있다²¹⁾.

이상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전공만족도의 상호관련성이 밀접함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동안에 간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비판적 사고 중심의 교과운영 및 교수학습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3.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3)

Characteristics	Categories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in major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Scheffe
Gender	Male	3.45(0.67)	.537 (p=.592)		2.92(0.33)	-.75 (p=.452)		3.52(0.49)	.031 (p=.975)	
	Female	3.39(0.66)			2.97(0.32)			3.52(0.52)		
Age(yr)	≤ 22	3.41(0.47)			2.98(0.35)			3.55(0.52)		
	23~25	3.29(0.67)	1.413 (p=.247)		2.91(0.33)	1.07 (p=.343)		3.44(0.52)	.99 (p=.372)	
	≥26	3.41(0.66)			2.97(0.31)			3.57(0.38)		
Religion	Yes	3.29(0.68)	-1.51 (p=.131)		2.99(0.29)	1.23 (p=.220)		3.44(0.51)	-1.60 (p=.110)	
	No	3.00(0.64)			2.94(0.33)			3.57(0.52)		
relationship with friends	Good	3.38(0.69)			2.90(0.30)			3.47(0.52)		
	Normal	3.48(0.57)	3.10** (p=.048)	c<b,a	2.97(0.34)	2.47 (p=.088)		3.61(0.49)	3.38** (p=.036)	c<a
	Bad	3.08(0.79)			3.06(0.25)			3.30(0.52)		
Academic achievement	≥3.0	3.32(0.65)	-1.51 (p=.133)		2.95(0.34)	-.25 (p=.797)		3.47(0.46)	-1.43 (p=.153)	
	≤2.9	3.48(0.67)			2.97(0.28)			3.58(0.57)		
Admission motivation	self choice	3.24(0.69)			2.98(0.30)			3.46(0.56)		
	According to score	3.39(0.56)	.93 (p=.424)		3.02(0.35)	1.61(p=.189)		3.55(0.06)	.23 (p=.872)	
	Recommendation	3.58(0.96)			3.00(0.31)			3.47(0.21)		
	High employment	3.43(0.67)			2.90(0.29)			3.53(0.07)		

4. Correlation among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participants (N=163)

Variable	Ego resilience
	r(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18(p=.021)**
Satisfaction in Major	.80(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북에 소재한 간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 그리고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은 음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자아탄력성과 전공만족도는 높은 양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전공만족도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자아탄력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 및 상담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경북 일 지역 간호대학생을 편의 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수집기간이 학기말 방학직전이었으므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상담 및 교과과정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상관성이 높은 자아탄력성, 비판적 사고성향 외에 다른 변수들을 찾아내어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1. Keller JM. Motivation and instructional design: a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instructional development, 1979;2(4):26-34.
2. Weis D, Schank MJ.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000;32(2):201-204.
3. 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249-361.
4. Whang SJ.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06;12(2):205-213.
5. Rankin B. Emotional intelligence : enhancing values-based practice and compassionate care in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3; 69(12):2717-2725.
6. Park HJ, Jang IS.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0;16(1):14-23.
7.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8. Ji EJ, Bang MR, Jeon HJ. Ego Resilience, communication abi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3; 19(4):571-579.
9. Kim SL, Lee J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2005;11(1):98-106.
10. Shin KR., Ha, JY., Kim KH. A longitudinal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 critical thinking skills in baccalaureate nursing

-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35(2):382-389.
11. Choi HR. The influence of nurses' performance with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proc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2010.
 12. Daly I. The development of a alternative method in the assessment of critical thinking as an outcome of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1;36(1):120-130.
 13. Park JA, Lee EK.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1; 17(3):267-276.
 14. Jeong MH, Shin MA.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Nursing Education*, 2006;12(2):170-177.
 15. Chaung SK.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2011;18(1):46-56.
 16. Shin KA, Cho BH.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2012;19(1):71-78.
 17. Lee JY, Lee YM, Park SY, Jung YH.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tres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3; 19(4):606-276.
 18. Song JE, Chae HJ.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 20(4):502-512.
 19. Cha SK, Lee EM. Comparison of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students of other maj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 20(4):650-658.
 20. Por J, Barriball L, Fitzpatrick J, et al.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2011;31(8):855-860.
 21. Kim DJ, Lee JS.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satisfaction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014;20(2):244-254.
 22. Yoo SK, Shim HW.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2002; 16(4):189-206.
 23. Yoon J.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2004.
 24.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0;1(1):7-20.
 25. Lee OS, Gu MO, Kim MJ.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6):3902-3910.
 26. Hong SY. Relation among stress, ego-resilience,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in graduate medical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1;12(12):5797-5804.
 27. An SM, Park KI.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life respect program on the sense of life respect and ego-resilience of teenagers from low-income families. *Studies on Korean Youth*, 2016;27(1):5-32.
 28. Kim SJ, Kim BY. The effects of a positive psychology program on nursing students' pos-

- itive thinking, ego resilience and stress cop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Nursing Education, 2016;22(4):495-503.
29. Park JA, Hong JY.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go resili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s basic nursing skill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6;16(1):342-351.
30. Oh J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14(10):873-884.